

## 安東權氏大宗院 運營委員會議

## 派宗會長協議會 結成

안동권씨대종원(총재 권정달)은 2011.8.24 서울 동대문구 유동동 본원에서 총재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권정석 사무총장은 운영위원 총 17인 중 16인이 출석하였다고 보고하고 이어서 권정달 총재는 운영위원회에 선임장을 수여하였다.

이날 대종원 창립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달 총재는 여러분께서는 통합된 권문을 이끌어가는 총재단 중 문사를 중추적으로 선도해야 할 중책을 맡고 있어 자못 의가 크며 권문의 문사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분들이 의사를 창출하여 권문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첨언하여 운영위원회는 높은 직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종원 살림살이를 함께 있어 가까이서 수시로 보살펴 줄 수 있는 분을 선임하였으니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이날 토의된 내용은 첫째로 대종원의 주요행사로서 8월31일 안동에서 15파총회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안동권씨 대종원 총재단 운영위원회를 2011.8.24 대종원에서 개최하고 있다.

협의회장을 선출하고 9월8일은 서울에서 지역총회장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장을 선출하여 파종간, 지역간 협력과 발전을 도모키로 하였다.

둘째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총회 종무위원회의 주요기능 중 위임받은 사항과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처리기능, 관련기관에 대한 제안 행정업무 지원, 종원에 대

한 포상 및 기타업무를 정관 제 22조에 따라 규정하였다.

셋째 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은 대종원의 회계연도가 3월말로 끝남에 따라 총회를 매년 5월 하순경 개최키 위하여 종무위원회를 5월 중순 개최하고 종무위원회 심의의결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는 5월 초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넷째 남중공 유허비 이전문제는 종무

위원회에서 검토 결론을 맺기로 하고 다섯째 대종원의 재산은 기존 중앙총회 재산이 안동권씨대종원으로 등기 이전 완료하였으며 세무서 및 사업자 등록도 완료하였으며 안동지역 재산은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임원 수첩발행은 성명, 아호, 생년, 파세, 직장, 전화, FAX/E-Mail, 주소, 우편번호를 기록하되 생년우선, 卍순으로 순차를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일곱째 대종원의 세부업무 시행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키로 하였다. 팔째로 권문의 노래는 부산지역에서 활발히 애창되고 있어 CD-ROM 제작을 하여 전국에 보급코자 추진 중에 있는데 가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 토의를 하였으며 기존가사와 수정문을 종보에 게재하여 많은 족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하기로 하였다.

(편집인 권정석, 사진 권범준)

지난 8월 31일(수)에는 안동에서 안동권씨대종원 산하 독립된 조직인 안동권씨파총회장협의회가 결성되었다. 회의 순서는 개회선언, 시조묘소 망배, 상응례, 회원들의 자기소개에 이어 권정달(權正達) 총재가 빠짐없이 참석 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대종원과 파총회협의회 발전에 많은 협조를 부탁하는 간단한 인사말을 하였다.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여 회장선출에 들어가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다가 권계동(權啓東) 부야공파총회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어서 선출된 권계동 협의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하여 협의회 발전에 힘쓰겠으며 회원 상호간의 결속을 공고히 하겠다고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회의를 주재하



파총회장 협의회 후 기념촬영

여 권영식(權英植) 종파회장, 권영익(權寧植) 부장공파총회장 두 분의 부회장을 선출하였으며 총무는 권기룡(權奇龍) 정조공파총회장을 협의회 발전에 힘쓰겠으며 회원 상호간의 결속을 공고히 하겠다고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회의를 주재하

의, 회비, 사업 등의 분회 운영방안에 대한 진지한 협의를 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산회하였다. 앞으로 협의회는 송조정신을 함양하고 분회의 발전과 친목을 도모하며 문중의 단합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사무부총장 권순갑 / 사진 권기덕

### <국회의원 의정활동 시리즈>

## 권영진 의원을 찾아서

권영진(노원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평소 문중과 고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권 의원은 평소 효행이 남다른 것으로 소문나 있으며, 국정에 임하는 자세가 당당하고 소신있기로 유명하다. 고려대 영문과를 나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권 의원은 18대 총선으로 국회에 입문,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기획단장, 서울시장에 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나라당 민본 21 간사, 서울대 지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시 정부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근황과 함께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그의 고견을 들어 본다.

1. 권 의원님의 정치활동에 있어 소신과 철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꼭 다짐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권자들과 저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라는 것과 둘째,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말로는 싸우더라도 절대 "몸싸움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맹세,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사람 변화'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절대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다짐은 정치를 먼저 하셨던 아버지께서 늘 제게 해주셨던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말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의원님은 서울시 정부부시장을 훌륭히 해내신 것으로 평이 있는데 그 중 한가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훌륭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만은 시민을 위해 충실히 근무하는 것이 저의 신조일 뿐입니다. 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모습

울시 정부부시장 시절에는 서울지역 학생들과 학교지원을 위해 '교육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별도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노원을 교육특구로 지정받게 하여 '노원-상계동'으로 대변되는 도시를 '교육도시 노원'이라는 브랜드로 특화시키기도 했습니다.

3. 한나라당 당내에서는 상당히 비중있는 중진이 되셨는데 앞으로 정치적 꿈이 있으시다면,

- 통일원에서의 공무원생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 서울시 정부부시장으로 20조원의 예산을 집행해 본 행정 경험, 국회의원으로 국정을 운영해 본 경험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를 지켜주는 지지자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현재보다 조금 더 큰 정치를 펼쳐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니, 지금까지 많은 동료의원님들이나 주위 분들이 저를 믿고, 지지를 해주신 덕분에 후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듣고, 보고, 배우면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점진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4.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에 엄청난 노력하셨다는 평을 듣는데, 서울특별시 정부부시장 시

절 기억에 특별히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서울시에서 매년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무료해변캠프'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아직까지 장애와 비장애의 현실적 벽으로 인해 일상에 한번 바닷가를 볼까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여름철에는 직접 해수욕을 통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해변캠프 운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매년 해수욕장을 구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서울 시의와 국비를 합쳐 55억원의 예산으로 강원도에 '해양재활센터'를 직접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고 자금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 오다보니 서울시 부시장시절, 장애인 부시장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부시장 취임 후, 바로 시작한 것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산을 집행해 본 행정 경험, 국회의원으로 국정을 운영해 본 경험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를 지켜주는 지지자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현재보다 조금 더 큰 정치를 펼쳐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니, 지금까지 많은 동료의원님들이나 주위 분들이 저를 믿고, 지지를 해주신 덕분에 후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듣고, 보고, 배우면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점진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5. 권 의원님은 서민정책에 많은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권재진씨(58. 대구, 북아양파35번)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제 62대 권재진 신임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변화해야 하며 원칙과 기본은 '공정한 법치'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국가 주요이슈에 대한 갈등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고, 자신들의 주장을 불법집단행동으로 관철하려는 행태도 사라지지 않고, 법질서 수준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강력범죄 역시 날로 흉포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과 무질서는 법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고, 그만큼 법무부와 검찰이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국민들은 변화에 둔감하고 조직의 이익만 앞세운다는 이유로 법무부와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치'라는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권 장관은 "공정한 법집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구속, 양형 기준 등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만들고 특히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에 모두 있는 만큼 선거사법 처리과정에서 일체의 중립성시

보장하되, 불법과 폭력을 앞세운 '떼쓰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감찰수사를 비롯한 법무행정 모든 분야에서 인권존중의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피해자와 출소자 등 사회적 약자나 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며 "교통신신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가 되고 있지만,

노르웨이 테러에서 보듯이 한 국가 안에서도 인종 간 갈등의 골은 깊고 이제 남의 일만은 아니니 지킬 것은 지키면서 세계와 함께 호흡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방과 통합의 외국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도덕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 솔선수범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 먼저 단정하고 바르게 처신하고, 엄격한 비리 감찰과 더불어 사전적, 예방적, 감찰활동에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보다 진취적이고 개방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어느 곳에서든 주인의 의식을 가지라'는 의미의 '수처자주(隨處作主)'라는 말을 언급하며 "주인의식을 갖고 직분에 충실할 때, '공정한 법치'는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다"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에 부여된 권한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를 낮추고 우리가 옳다고 믿는 길을 고집하기에 앞서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 마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 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초인검사로 임명되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설레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연>

정책으로 답이 내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의정의 핵심은? 국민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어떻게 소통하고, 이 부분의 의견을 어떻게

기획단장을 맡으면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예산으로 반영하고, 정책으로 다음기 위해 많은 선배, 동료의원님들과도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음식집대 봉사활동과 사랑의 김장담그기

## 권문의 노래 가사 수정 의견수렴

아래와같이 기존 가사와 수정가사를 게재하니 9월말 까지 족친들의 좋은 의견을 대종원으로 연락바랍니다.

### 권문의 노래 (기존 가사)

1절 三太師 尊의모아 三國統一 하을적에  
始祖님의 中庸之德 賜姓으로 보답하네  
천등산 불 밝히고 鳳凰명당에 잡드스니  
四始의 빛난 가문 백만거족 이루었네  
(후렴)  
오호라 조상음덕 영원토록 發願하사

### 권문의 노래 (수정 가사)

1절 권태사 중용지도(中庸之道) 삼국통일 하을적에  
시조님의 병기달림 사상으로 이어졌네  
천등산 불 밝히고 鳳凰명당에 잡드스니  
四始의 빛난 가문 백만거족 이루었네  
(후렴)  
오호라 조상음덕 영원토록 發願하사

### 권문의 노래 (수정 가사)

1절 권태사 중용지도(中庸之道) 삼국통일 하을적에  
시조님의 병기달림 사상으로 이어졌네  
천등산 불 밝히고 鳳凰명당에 잡드스니  
四始의 빛난 가문 백만거족 이루었네  
(후렴)  
오호라 조상음덕 영원토록 發願하사

### 권문의 노래 (수정 가사)

1절 권태사 중용지도(中庸之道) 삼국통일 하을적에  
시조님의 병기달림 사상으로 이어졌네  
천등산 불 밝히고 鳳凰명당에 잡드스니  
四始의 빛난 가문 백만거족 이루었네  
(후렴)  
오호라 조상음덕 영원토록 發願하사

安東權氏大宗院

## 安東權氏宗報

宗是：崇祖理念確立·愛族思想鼓吹 後學啓導寄與·社會倫理培養

발행인 권정달 편집인 권범준 인쇄인 권재진

발행장소 : 安東權氏大宗院 : 서울시 동대문구 유동동 105-3(2층)  
우 : 130-820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安東事務所 : 경성북도 안동시 태화동 418-1(3층)  
우 : 760-120 전화 (054) 857-7705/854-2256 FAX (054) 854-2257

E-mail : ankwonjung@yahoo.co.kr andongkwon@paran.com

編輯委員	권오선, 권오복, 권태하, 권계동
記者	권경일, 권범준, 권오인, 권희석
자문위원	권정달, 권영한, 권태하, 권영식, 권영호, 권오성

예금주 및 계좌번호(총회회, 대종회)	종보사(개인독자)
권정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우체국 : 종보사
(중앙총회) 농협 076-02-247343	010108-01-000369